

## 어르신 주거 정서 환경개선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3지역·6지역 공동봉사 일일찻집 후기

### 우리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시다

지난 12월 9일 토요일 오후에 3지역과 6지역 17개 클럽 합동으로 공동봉사기금마련을 위해 홍대 앞 에이프릴에서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번 봉사의 주제인 어르신주거, 정서환경개선은 쉽게 말해 노인들의 집과 마음을 고쳐주는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마포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에서는 모두 1,300여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모두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장애인들이다. 실제로 접하는 노인들의 생활은 어렵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이다.

며칠 전 폐지 줍는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불을 전달하며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 내내 지하실 냉방에서 생활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봉사가 실행이 되려면 1차 과제는 로타리인들이, 클럽, 클럽마다 이 노인 돌봄의 필요성을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일이다. 2차로는 봉사기금의 마련이다. 3차로는 세밀하게 준비된 계획과 효과적인 실행이다.

실행방법은 주거 쪽으로는 노인들의 집에 한집 당 30만원 책정하여 지정 보수 센터 연결하여 전기, 수도, 화장

글. 이정수(새서울RC 회장/총재특별대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이사



실, 등등을 고쳐주고 핸드레일공사와 보행기 등을 지원하는 일과, 정서쪽으로는 노인우울증과 자살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정신의학적 집단치료와 개인별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OECD의 비교대상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빈곤율 1위이다 (2017년 11월11일의 OECD 65~75세 빈곤율 조사에서 한국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 76세 이상 빈곤율은 60%이며, 빈곤율은 소득순으로 볼 때 중위소득 50%이하를 뜻함) OECD국가중 한국이 노인빈곤율1위, 또한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이 심각한 현실은 우리의 문제이며 이러한 돌봄은 큰 범위에서의 '패밀리 투게더'이며 더 나아가 거창하지만 실제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목표액 2,000만원을 1차로 세워 지원금, 클럽공동



기금, 일일찻집 성금을 합해 모금 중에 있는데, 이 봉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3650지구의 3지역과 6지역 클럽들뿐 만이 아니라 모든 클럽들이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일찻집은 그러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열었는데 지방출장 중이셨던 이순동 총재님께서 이 봉사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신 축사를 보내주시고, 박영구 총재님, 이영호 총재님, 박호군 총재님, 장세호 차기총재님, 박수부 차기총재님께서 오셔서 격려하시고 또한 노인건강에 앞장 서시는 한국전립선관립협회 권성원 회장께서도 일찍 오셔서 앞으로 이봉사가 지속적인 봉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

오신 분 한분 한분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미처 적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 여기서 그치지만, 찻집을 마치며 가는 길에 와주신분들을 한분씩 떠올리며 축복을 빌었다.

많은 사람들의 융합과 뜻을 같이 하는 공유 속에서 항상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노인 돌봄 캠페인을 통해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한 번의 행사가 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세대를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간 어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가는 길이다.

일일찻집은 시와, 나레이션, 재능기부 연주 등 참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이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들이고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봉사와 실행을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일찻집에 온 '마포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의 박도식 센터장은 독거어르신 집수리 봉사를 설명하며 이 추운겨울 난방이 안 된 방에서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전기가 고장 나도 고칠 엄두도 못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며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현실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 공동모금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어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로타리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맺는다.

지금 이렇게 편한 우리들의 집 밖에서 주름진 언 손을 부비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기 없는 방바닥에 빈약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은 이렇다.

“밤이 되어 눈을 감으니 캄캄하다.  
눈을 뜨니 더 캄캄하다”